

섬유 업계에서 들려오는 토막 소식들 <12>

◎ 패션 · 비즈니스를 새로 개척하려면 그 나라의 역사 · 문화 알아야

일본 국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최근에 인도를 방문한 보고에서, 셀렉트 숍(select shop : 특정 브랜드에 국한되지 않고 경영자의 취향이나 센스에 따라 품목을 정하는 의류 전문점) 시찰이나 인도 바이어를 위한 시찰단의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그들은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복식(服飾) 디자인에서 그 지방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복식 문화는 물론 미의식(美意識)이나 감성까지를 잘 새겨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이후에 ‘일본 밖에는 없는 것’을 제안할 수 없으면 어려운(severe) 가격 교섭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인도에만 국한(局限)된 것이 아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들어 하는지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다른 문화와 적극적으로 친근해지는 것도 앞으로의 패션 비즈니스의 키가 될 것이다.

◎ 속도가 빠른 새로운 디지털 날염 기술 머지않아 완성

나가세 컬러 케미컬(長瀬 color chemical) 사장은 “연구 개발이 완성되면 일본 염색업이 크게 바뀔 것이다.”고 말하였다. 이 회사는 정전 전자 날염(靜電 電子 捺染)이라고 하는 새로운 디지털 날염 기술(digital 捺染 技術)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복사 기술을 응용한 것이다.”고 한다.

현재의 디지털 날염의 대표라고 하면 잉크 제트 프린트(ink-jet print)인데 이 기계는 속도(speed)가 늦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개발하는 기술로는 오토 스크린(auto screen) 수준의 속도로 디지털 날염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년 내에 상품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빨리 완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의 공통점은 정부가 섬유 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

일본 섬유 산업 연맹 회장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의 공통된 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섬유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2010년 7월에 이들 3개국을 방문하여 섬유 산업의 톱(top)과 면담을 가졌었는데, 첫째는 아세안(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섬유 산업은 활력이 넘치고 둘째는 일본 시장이 중요 타깃(target)으로 되어 있으며 각국 정부의 활발한 참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회고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에서는 개별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상황은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산업계의 글로벌한 활동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였다.

◎ 갈수록 젊은이의 힘을 필요로 해

히로시마현(廣島縣) 후쿠야마시(福山市)에 있는 히시토모 상사(菱友 商事) 사장은 “이제부터 갈수록 젊은이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앞으로 소비자 니즈는 한층 더 세분화되므로 텍스타일에서도 개발력이 더욱 중요하다. 여러 가지 개발을 익숙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젊은 감성을 뺄 수가 없다.

이 회사는 최근에 매년 신입 사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20대 사원도 많아졌다. 젊은 사원이 베테랑(veteran)의 지혜를 배우면서 텍스타일을 개발하는 데에 힘을 보여주고 있다. 사장은 “젊은 사람이 활약함으로써 산지도 지키게 된다.”고 젊은 사원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

◎ 위조지폐의 장군 명군

중국에서 한 때 상식 정도로 사용되던 새로운 말이 어느새 사라져버린 말 중에 완위안후(萬元戶 : 1980년대 경제 개혁 개방으로 인하여 출현한, 년 수입 또는 누계 저축액이 1만 위안 이상 되는 가정 또는 돈이 많은 집안)가 있다.

지금은 농촌에 속하는 주민 1인당 평균 연간 수입은 5,000 위안을 넘어 부부가 일을 하게 되면 쉽게 완위안후가 될 수 있게 되었고 도시에 속하는 주민의 소득은 농촌보다 대부분은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중국의 지폐는 1955년의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 : 통화 단위) 변경 이후 1, 5, 10, 20, 50 위안과 최고액 지폐인 100 위안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가짜 지폐가 유통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중국 정부는 매우 신중하지만 정

부의 경제력이나 국민 생활수준을 감안하면 500 위안 지폐가 발행되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을 것이다.♣